

방통위 캄보디아 공무국외출장 결과

- 캄보디아 방송통신 협력 강화 -

- ◆ 기 간 : 2016. 12. 6.(화) ~ 12. 9.(금), 2박 4일
- ◆ 방문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2017. 1.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세부 활동	2
1. EBS-Apsara TV MOA 참석	2
2. MOI(공보부) 방문	5
3. MPTC(우정통신부) 방문	8
4. Bayon TV 방문	11
5. Apsara TV 방문	14
III. 보도자료	16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MPTC(우정통신부), MOI(공보부) 면담 및 규제정책 공유
- EBS-Apsara TV 간 방송협력을 위한 MoA 체결식 참석

2. 출장 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3. 출장 기간 : '16년 12월 6일(화) ~ 12월 9일(금), 2박 4일

4. 출장자

구분	부서	직위(직급)	성명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2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국장	김영관
3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장(서기관)	전혜선
4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행정사무관)	이정아
5	운영지원과	수행비서(방송통신사무관)	김성권
6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 주무관(방통주사)	박민규
7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 주무관(행정주사보)	박규태
8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	임준옥
9	-	통역	김지은

5. 주요 활동

- MOI(공보부)와 국내제작물 보호정책과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양국간 방송 현안 및 의견 공유
- MPTC(우정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700MHz 주파수 활용 및 분배 등 방송통신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통신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6. 선물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 : O (유적 그림 쟁반, 우정통신부(MPTC) 방문 기념)
- 선물 신고 여부 : X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

II. 세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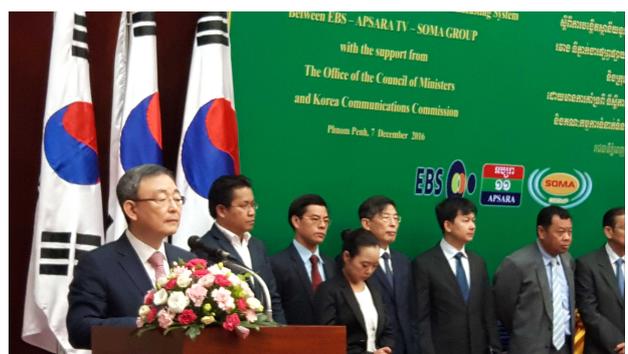
1. EBS-Apsara TV MoA 참석

- 일시 /장소 : '16. 12. 7.(수) 8:30~9:30, Office of Council Of Minister (프놈펜)
- 참석자 : 방통위 위원장, EBS 우종범 사장, Apsara TV 임지오 Managing Director 이사장, SOMA Group 쪽 뿌띠뿌쓰 회장, 관방부 텍렛 삼랏 정무장관 등
- 주요 내용 : EBS와 Apsara TV가 방통위 위원장 및 캄보디아 관방부 정무장관 등 정부 관계자 임석 하에 캄보디아 교육방송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MoA를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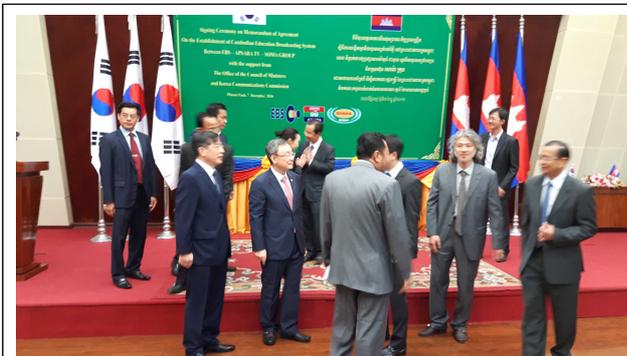
<붙임 1 - 행사 참석 사진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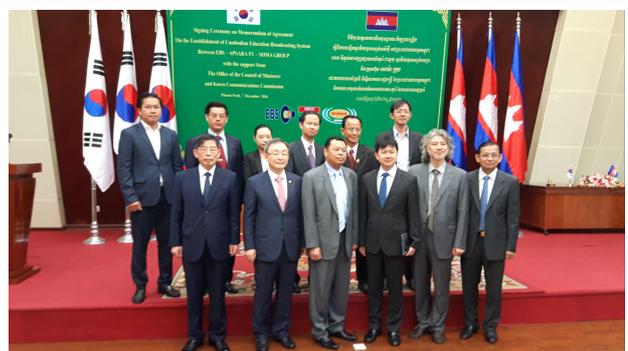
< MoA 임석 >



< 축사 발표 >



< 환담 장면 >



< 기념 사진 >

<붙임 2 - 위원장님 축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입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렉렛 삼랏 관방부 정무장관님,

쑹 뿌띠뿌쓰 SOMA 그룹 회장이자

압사라 TV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 한국과 캄보디아가 재수교를 맺은 이후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수자원개발사업 및

2006년부터 매년 프놈펜에서 개최중인 한국영화제 등

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방송 분야의 협력은 방송콘텐츠 및 뉴스 정보 등

상호 방송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하며

이를 통한 양국 국민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양 국가 간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분야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의 교육방송 EBS와

캄보디아의 Apsara TV 간의

합의각서 체결은 양 국가 간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EBS는 세계 유일의 교육 공영방송으로
지상파방송과 인터넷 e-learning 교육시스템을 통해
수능, 영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케 함으로써
학교교육 보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EBS 교육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훌륭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등
Apsara TV의 훌륭한 협력파트너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MoA 체결을 통해
Apsara TV가 한국의 EBS와 협력하여
방송 인프라 및 제작 시설을 확충하고
EBS의 교육방송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캄보디아의 교육방송으로 우뚝 설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캄보디아가
2020년 '디지털 전환의 해'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방송시설 현대화 및 영어, 초·중·고 학습채널 런칭 등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길 바라며,
방통위 역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EBS와 Apsara TV간의 MoA 체결을 축하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방송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캄보디아 공보부(MOI) 장관 면담

□ 일시 /장소 : '16. 12. 7.(수) 10:00~11:30, 공보부 회의실(프놈펜)

□ 면담자 : 키에우 카나리스(KHIEU KANHARITH) 공보부 장관
캠 구나와드(KEM Gunawadh) TVK 국장 등

□ 세부 면담내용

【국내 방송제작물 보호 정책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관련】

- (방통위) 최근 캄보디아에 외국 콘텐츠가 많이 들어와 자국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들었음. 한국도 캄보디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콘텐츠 수출은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함
 - 이런 측면에서 양국 간 공동제작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방통위와 공보부, 양 기관이 자국의 방송 사업자들을 독려하여 공동제작이 활성화 되길 희망함
- (MOI)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함. 특히 캄보디아 방송의 디지털 전환, 콘텐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 현재 캄보디아에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공보부에 공동제작을 위한 실무진들을 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함
- (TVK) 캄보디아에 한국 콘텐츠가 많이 들어와서 드라마나 영화 등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이에 TVK는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한국 방송사들과 공동제작을 해보고 싶고, EBS와는 MoU를 체결하여 다큐멘터리 등을 공동제작하길 희망함

- (방통위) 국내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에게 TVK의 적극적인 공동제작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음
- (EBS) TVK와 EBS가 앙코르와트와 관련한 3D 다큐멘터리를 세계 최초로 공동 제작하였음. 캄보디아에서 세계적인 콘텐츠를 공동 제작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EBS-TVK 간 MoU는 실무 관계에서 협조 중임

【캄보디아 국영방송국 TVK 건의사항】

- (TVK) 캄보디아는 축구와 태권도 등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으며, 2023년에는 프놈펜에서 아세안 경기를 개최함. 하지만 스포츠 중계 기술과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 방통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방통위) 한국은 2018년 동계올림픽 스포츠 중계를 앞두고 있어 각 방송사들이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음. 한국에 돌아가서 스포츠 중계 또는 기술교육 관련 세미나 등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음
- 2014년 11월 프놈펜 국제 방송세미나에서 양국 방송인력 교육 개발과 인적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행사들을 토대로 방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타 양국 기관 간, 사업자간 협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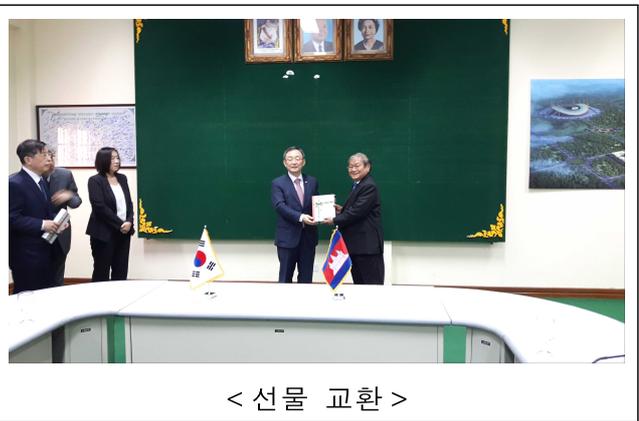
- (방통위) 한국과 캄보디아가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이해가 필수적이며,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 작년 한국 MBC가 캄보디아 CNC 채널을 통해 블록편성(7시간)으로 진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양국 방송사업자간의 교류 및 협력은 양국의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함
- o (MOI) 캄보디아는 한국의 지원으로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데 향후에도 한국의 인력, 기술 등 협력을 희망함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 면담 장면 >



< 선물 교환 >



< 기념 사진 >



< 기념 사진 >

3. 캄보디아 우정통신부(MPTC) 방문

- 일시 /장소 : '16. 12. 7.(수) 16:00~17:30, 우정통신부 회의실(프놈펜)
- 면담자 : 트람 입 텍(TRAM Iv Tek) 우정통신부 장관 등
- 세부 면담내용

【EBS-Apsara TV 협력 관련】

- (MPTC) 캄보디아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이 많이 부족함. 이런 실정에서 한국의 발달된 기술을 전수 받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EBS와 Apsara TV 간의 협력 관계가 더 진전되길 바람.
- (방통위) 금일 EBS와 Apsara TV 양 기관이 MOA 체결을 통해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로 하였음. 교육방송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MPTC는 주파수 관리 등 ICT 전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방송분야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됨. 이에 EBS와 Apsara TV 간 교육방송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MPTC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람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주파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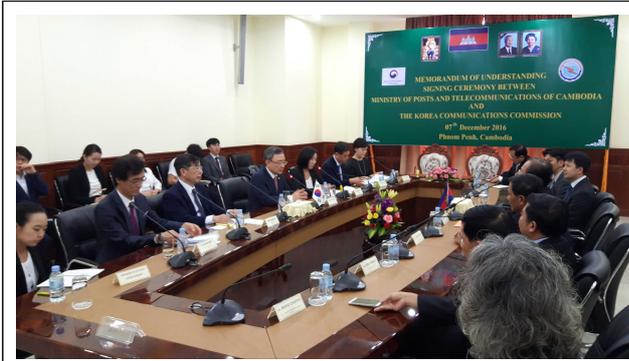
- (MPTC) 다른 아세아 국가들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TV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등 주파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이와 같은 지식과 경험 등이 없음. 이에 대한 방통위의 노하우 등을 공유 해주길 바람

- (방통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 한국의 경우 2000년대 후반부터 수 년 동안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병행하다가 2012년에 디지털 전환을 완료함.
- 디지털 전환 완료 후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서 사용하던 700MHz 대역을 통신용도로 활용 할 수 있게 됨. 이 대역 중 일부는 UHD 방송에 할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신 분야에 할당해 경매를 하였음
- 한국의 경우 현재 4G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고 5G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이에 통신사들의 주파수 요구량이 많아졌고 효율성이 높은 주파수를 갖기 위해 통신사들이 서로 경쟁한 결과 다양한 주파수를 서로 나누어 갖게 됨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 (MPTC) 최근 인터넷에서 중요시 되는 부분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문제임. MPTC에서 IT분야의 체계를 잡고 있는데 사이버 테러 방지 등을 위한 규제도입이 시급함.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알려주길 바람
- (방통위) 말씀해주신 사이버 시큐리티는 이제 한 국가에서만 대응할 일이 아님. 전 세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오늘의 MoU 체결을 통해 더 긴밀한 협업이 있길 바람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 면담 장면 >



<MoU 체결식 >



< MoU 체결식 >



< 선물 증정 >



<기념 사진 >



< 기념 사진 >

4. 캄보디아 Bayon TV 방문

- 일시 /장소 : '16. 12. 8.(목) 10:00~11:30, Bayon TV 회의실(프놈펜)
- 면담자 : 마이클 쿠오토(Michael Couto) Bayon TV 최고운영책임자
- 세부 면담내용

【방송사 간 공동제작 관련】

- (방통위) 한국과 캄보디아는 97년 수교 이후 문화 및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음. EBS와 Bayon TV도 2011년에 여행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는 선진 기술 등 과학 분야에서 EBS와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BS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방송사업자들과 서로 협력해서 공동제작을 하고 한국과 캄보디아를 넘어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방영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Bayon) 한국은 콘텐츠 산업에서 중심이자 리더라고 생각함. 할리우드에서 25년간 살면서 축적한 경험들이 있음.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방송국들과 협업할 수 있기를 희망함

【콘텐츠 자체 제작 비율 관련】

- (방통위) Bayon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콘텐츠 중 캄보디아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는 비율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 (Bayon) 캄보디아 내에서는 Bayon TV가 자체제작 비율이 가장 높음. 캄보디아의 다른 프로그램을 사기도 하고 한국과 태국에서도 많이 사지만 자체 제작 비율이 80%이며 해외 수출도 추진중임

- (EBS) 높은 자체 제작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Bayon TV만의 방송 철학으로부터 기하는 것인지?
- (Bayon) 방송을 만들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함. Bayon TV 이사장님께서서는 이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 등에서 캄보디아인들의 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제작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숙제임
- (EBS) 광고에서 재원을 마련하는지?
- (Bayon) 광고가 유일한 수입원이고 양질의 자체제작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음.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윤은 많이 없지만 자체제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음
- (EBS) 공공성이라는 방송철학은 EBS와 같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EBS와 Bayon TV간 시청자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동제작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함

【콘텐츠 제공 방식 관련】

- (방통위) 전 세계적인 추세가 TV 수상기를 통해 방송을 보기 보다는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음. 앞으로 Bayon TV 에서도 이동통신 망을 통해 콘텐츠를 보낼 계획이 있으신지?

- o (Bayon) 캄보디아는 도심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넷보다 TV사용률이 훨씬 높음. 하지만 현재 트렌드가 모바일 디바이스나 인터넷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함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 방송사 시찰 >



< 방송사 시찰 >



< 방송사 시찰 >

5. Apsara TV 이사장 면담

- 일시 /장소 : '16. 12. 8.(목) 15:00~17:00, Apsara TV 회의실(프놈펜)
- 면담자 : 쏭 뿌띠뿌쓰(Sok Puthyvuth) Apsara TV 이사장
 - (Apsara) 현재 젊은 층들은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음.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따르면서 시청자에게 가깝게 다가 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방송사 운영전략을 고민할 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교육이 한 나라의 발전에 기반이 되기 때문임. EBS와의 교육 관련 분야 협력을 통해 Apsara TV를 교육 분야 중심으로 개편하길 희망함
 - (방통위) Apsara TV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 교육방송을 선택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임. 특히 이제는 인터넷, 이동통신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방송이 단순히 방송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전송 수단들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함.
 - Apsara TV가 교육방송 채널을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 캄보디아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전달 교육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함
 - (Apsara) 캄보디아는 현재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데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배워서 캄보디아의 디지털 전환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희망함
 - (방통위) 한국은 '12년에 디지털 전환을 마쳤고, '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예정임. UHD가 HD보다 화질이 4배 좋아지지만,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른 부분임. 지금까지의 방송은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이었는데 IP를 기반으로 하는 UHD 방송시대가 오면 완전한 쌍방향 시대가 도래하게 됨

- (Apsara) 캄보디아는 2020년 디지털 전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캄보디아 부총리실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전환 작업을 진행 중임
 - 캄보디아는 현재 공식적인 방송법과 전담 부처가 없는 상황이며, 방송 부문은 MOI, 우정통신 부문은 MPTC로 나누어져 있어서 방송 통신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한국의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정책총괄기구로서 캄보디아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으며, 캄보디아도 방통위처럼 성장해 ICT 변화에 대응하기를 기대함
- (방통위)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부처간 역할이 중첩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임. 이것은 국가 내 부처끼리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련 부처간의 협력만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해결책이라 생각함

<붙임 - 면담 및 방문 사진자료 >



< 면담 장면 >



< 방송사 시찰 >



<방송사 시찰>



< 기념 사진 >

2016. 12. 6.(화)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 12월 6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 전해선 팀 장 (☎2110-1331)
박규태 주무관 (☎2110-1342)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캄보디아와의 방송통신 협력 강화 추진 - 한류 콘텐츠 확산 및 EBS의 캄보디아 진출 지원 위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MPTC) 등과 협력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캄보디아와의 방송통신 협력 및 한류 콘텐츠 확산 지원을 위해 12월 6일 저녁 출국한다.

최 위원장은 12월 7일(수)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와 캄보디아 Apsara TV 간 양해각서(MoA) 체결식에 참석, 사이 첨(Say Chhum) 국회 상원의장 및 Apsara TV 쪽 뿌띠뿌스(Sok Puthyvuth) 이사장과 면담을 갖는 등 EBS의 캄보디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캄보디아의 우정통신부(MPTC) 트람 입 텍(TRAM Iv Tek)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통신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방송통신사업자 간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12월8일(목) 최 위원장은 캄보디아의 Bayon TV, Apsara TV를 연이어 방문하고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캄보디아 방영 및 양국 방송사 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 12월 8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전해선 팀 장 (☎2110-1331)
박규태 주무관 (☎2110-1342)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캄보디아와 방송통신 협력 강화 나서

- 캄보디아 우정통신부(MPTC)와의 MoU 체결, 방송통신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 EBS 교육방송모델 캄보디아 진출 등 방송교류 확대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12월 7일(수), 8일(목) 양일 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방송통신 협력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와 캄보디아의 Apsara TV* 및 SOMA그룹**과의 3자 합의각서(MoA)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체결식은 Apsara TV가 EBS와 협력하여 캄보디아에 교육방송을 설립하기 위한 행사로 텍렛 삼랏(TEKRETH Samrach) 캄보디아 관방부(Office of Council of Minister) 정무장관 등 다수의 캄보디아 정부 및 방송 관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 Apsara TV : 캄보디아의 국회 관련 콘텐츠를 주로 방영하는 종합 편성 채널 민영방송사

** SOMA그룹 : 건설, 에너지, 농업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캄보디아 중견기업

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방송교류는 한국-캄보디아 국민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밝히고 “EBS의 수준 높은 교육방송 모델이 캄보디아의 학교교육 보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국의 교류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와의 방송통신 협력 및 한류 콘텐츠 확산 지원을 위해 캄보디아 공보부(MOI)* 및 우정통신부(MPTC)**와 면담을 가졌다.

* 공보부(MOI) : 캄보디아의 공공정보, 방송 등 미디어 분야의 정책 수립과 규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 우정통신부(MPTC) : 캄보디아 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관련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

키에우 카나리스(KHIEU Kanharith) 공보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EBS는 캄보디아의 TVK*, Bayon TV**와 공동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방통위 및 공보부가 양국의 방송사업자를 독려하여 공동제작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키에우 공보부 장관은 “현재 한국의 드라마 및 영화 등이 캄보디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과의 공동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TVK : 1996년 설립, 위성방식을 이용하여 캄보디아 전역에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영 방송 사업자

** Bayon TV : 1998년 설립, TV 및 라디오 사업을 주로 하는 캄보디아 최대 민영 사업자

특히 면담에 함께한 TVK의 켄 구나와드(KEM Gunawadh) 국장은 EBS의 우수한 다큐멘터리 제작기술을 언급하며 EBS에 양해각서(이하 ‘MoU’) 체결 및 공동제작을 제안하여 향후 양 방송사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진 트람 입 텍(TRAM Iv TeK) 우정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700MHz 주파수 활용, 사이버 시큐리티 및 통신관련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트람 입텍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급격한 캄보디아의 이동 통신 사용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신규제는 많이 미흡한 상태”라고 언급하고 방통위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한국은 통신 규제 관련 다양한 노하우를 지원하겠으며, 이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상황에 적절한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화답하였다.

이어 양 기관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보호 정책 등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최 위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방송통신 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분야 등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캄보디아의 Bayon TV, Apsara TV를 연이어 방문하여 캄보디아 현지 방송 제작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캄보디아 방영 및 양국 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